

장애인의 여가활동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연구: 여가제약을 중심으로*

신진호** · 홍서윤***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유형화한 후, 유형별로 나타나는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요인을 구별해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개발 지점을 확인하려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여가활동은 일상휴식형(1유형), 스포츠참여 및 관광형(2유형), 취미오락형(3유형), 적극적인 여가참여형(4유형) 및 사회교류형(5유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일상휴식형의 경우 고령의 중증장애가 두드러졌고, 주로 혼자 여가활동을 하였다. 스포츠참여 및 관광형은 일상휴식을 주로 하지만 관광활동과 스포츠 참여활동을 활발히 하는 유형으로 혼인 중인 비율이 높고 의사결정 주체로 배우자를 선택한 비중이 높았다. 취미오락형(3유형)은 휴식과 취미오락 활동을 함께하는 유형으로 3, 40대가 상대적으로 많고 안면장애, 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이 높았다. 적극적 여가참여형(4유형)은 유형 중 소득과 학력이 가장 높고, 자존감 및 장애수용도 높았다. 사회교류형(5유형)은 일상휴식과 함께 대외활동이 활발한 유형으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가 동반자로 가족 및 친구를 선택한 비율이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하나의 동일 인구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을 비롯하여 장애청년, 장애노인, 장애여성 등의 개별적 욕구에 필요한 상이한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성화를 위해 자존감, 장애수용과 같은 대내적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고, 구조적 제약에 있어 장애인의 인식 수준에 맞는 정책의 고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장애인 여가, 여가제약, 장애수용, LCA, 무장애 관광

* 이 논문은 2021년 제1회 「제1회 장애인삶 패널조사 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논문을 수정 보완 하였습니다. 세심한 심사평으로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주저자,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violetjin@snu.ac.kr)

*** 공동저자,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수료(seoyoonhong@gmail.com)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유형화한 후 여가학에서의 여가제약이론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과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구분되는 인구집단으로 통칭하기 쉽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상 존재하는 15개의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 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성이 있고,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의 경우 가정공간 및 지역 사회의 물리적 접근성이 중요하다면, 지적장애인에게는 물리적 접근성보다는 주체적으로 삶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방안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준비하거나 지속해야 하는 청·장년층 장애인과 장애인 노인 혹은 노인성 장애인에게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안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주목하였다. 현재 장애인이 수행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유형화한 후 유형별 장애인 집단의 특성은 어떠한지 고찰하고, 여가학에서의 여가제약이론을 활용하여 유형별로 개입할 수 있는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요인을 구별해냄으로써 보다 정교한 정책개입 지점을 확인하려 한 것이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여가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선행연구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에 있어 여가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한다(정연홍, 2013; 강미경, 이동진, 유가효, 2010). 그러나 여가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활동의 종류에는 스포츠, 영화관람 등의 문화생활에서부터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원예, 독서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또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 여가활동이 다를 수 있다. 선행연구는 시청각장애인을 연구집단으로 하여 여가활동 참여 및 여가제약을 연구하거나(김한철, 2004; 이충환, 2008),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가 스포츠 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도 하였으며(정재춘, 2013),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여가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도 발견된다(강소영, 2014). 다만 개별적인 장애유형 혹은 여가 종류에 따라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찾는 기존의 연구는 '장애인의 여가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적인 함의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별 유형을 넘어선 장애인 정책을 제안하는 데 어떠한 제약요인을 해소해야 할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가 제약요인의 개념을 활용한 장애인 여가에 대한 국내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관한 요인을 연구한 임영명, 차태현(2018)의 연구에서도 여가와 장애 두 학문적 주제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세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즉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지점을 명확히 하

기 위해서는 여가활동 유형과 장애특성을 교차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에 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의하면,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그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등을 포함하는 문화콘텐츠와 『관광기본법』에 따른 국민관광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및 생활체육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법 제14조에서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이라는 제목 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 여가활동은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며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의 접근보다, 각 장애유형별, 연령별 장애인 개개인이 누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이해하여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의 의료모델, 사회모델을 넘어 인권적 접근을 요구하는 장애인론의 흐름에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보편적 인권실현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에 대한 조항에서 장애인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준 당사국의 의무로 강조된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제24조),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제24조의2),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제25조)의 개별 조항에서 여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동등하고 완전한 문화, 여가, 체육활동의 참여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적 개입방안이 무엇인지를 여가제약 이론을 통해 탐구하려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여가의 개념 및 내용

여가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부터 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는 「정치학」7권에서 ‘국가의 입법자는 평화와 여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며 여가를 활용하도록 교육하지 않는 것을 입법자의 탓으로 보았다. 또한 ‘전쟁이 평화를 위해 있는 것처럼, 노동(Ascholia)은 여가(Schole)를 위해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가란 ‘즐거움과 행복과 복된 삶을 그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일을 멈추는 휴식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마음 상태로서의 여가’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이 여가 기회를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여가를 마음과 정신수양의 상태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심리적 조건으로서의 여가’에 대한 주장도 있다. 경험주의적 접근을 근거로 마음 상태가 반드시 영적 태도나 자기 계발의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행위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선택하였는가와 같은 ‘결정 여부’와 행위의 목적에 따른 내재적 보상 추구하고 동기 상태가 여가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Neulinger(1974)에 의해 최초로 정리되었으며, 모든 인간 경험은 상대적 기준에서 여가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논의된 여가의 개념이 주관적 관점의 접근이었다면,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는 객관적·제도적 관점의 여가 개념을 시도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여가를 ‘시간 단위’로서 설명하였는데, 일이나 노동에의 시간 할애 이후 남는 시간을 ‘여가’로 정의하며 여가를 노동이나 일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았다(Shivers, 1981; Kaplan, 1960). 한편, ‘활동 단위로서의 여가’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Dumazedier, 1960), 여가를 남는 시간이 아닌 ‘남는 시간에 수행하는 자유 활동’으로 정의하며 ‘일련의 행동 과정에 시작과 끝이 있는 자유의지의 단위로서의 활동’을 여가로 보았다. 이와 달리 고동우(2007)는 여가 개념의 정의에 대하여 통합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대신 여가 가치관이나 현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철학적인 개념규명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가의 기능적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여가를 정의하려 한다. Iso-Ahola(1980)은 스포츠활동, 사회활동, 공작활동을 여가로 보았고, 임변장 등(1995)은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 활동, 관람감상 활동, 놀이오락 활동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Hills와 Argyle(1998)은 스포츠, 음악, 종교활동 그리고 TV시청도 여가로 보며 이러한 여가의 중요한 원천은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관광공사(1985)는 행락, 관광, 모임 및 사교, 감상 및 관람, 스포츠, 취미·교양·창작, 놀이·오락, 기타 수동적 활동으로 여가 유형을 구분하였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의 여가백서에서는 문화예술 관람활동 및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및 참여활동, 관광, 취미·오락, 휴식, 기타 사회활동 등 8가지로 여가를 구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여가를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하며, 직업상의 일이나 필수적인 가사일·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여가’에 대한 개념은 시대나 연구자에 따라 그 관점이 다르지만 일련의 공통점도 존재한다. 즉,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 다시 말해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결정으로 어떠한 행위나 행동을 하고, 그 결과 정서적인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여가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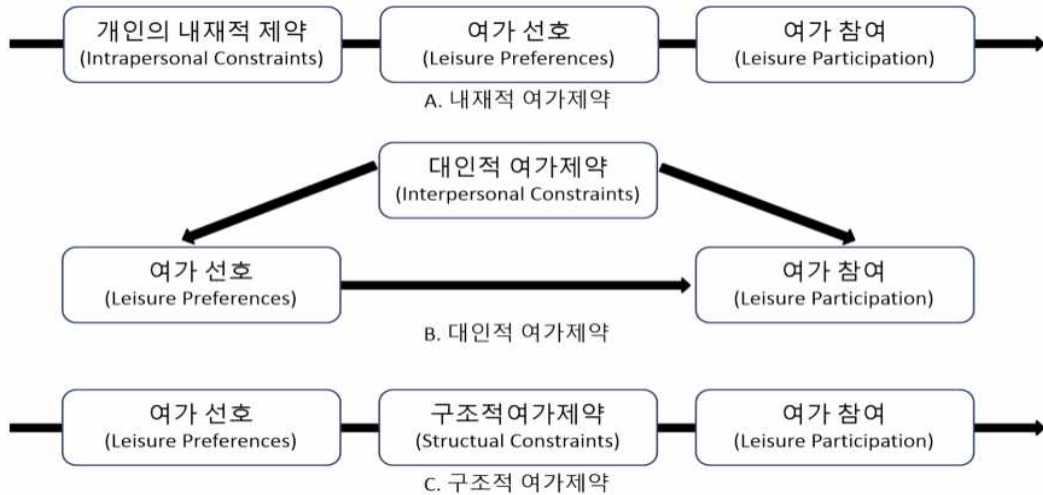
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개념화 및 설명방식은 공통적으로 “의무적 활동이 아닌 자유의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는 마음의 행복감”을 여가의 핵심요소로 보고 있는 듯하다. 본 연구에서도 여가학에서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여가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의무적인 활동 시간 외에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에 개인의 자유의지 및 자기 결정을 토대로 자신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련의 행위 자체”를 여가로 볼 것이다¹⁾. 이하에서는 여가제약의 개념과 장애인의 여가제약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장애인과 여가제약

여가제약이란 한 개인이 여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방해 요인을 말한다. Crawford와 Godbey (1987)는 여가제약을 내재적 제약요인(Intrapersonal Constraints), 대인적 제약(Interpersonal Constraints), 구조적 제약(Structural Constraints)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제약요인은 개인의 관심, 흥미 부족, 불안 등 심리 상태에 따라 여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대인적 제약요인은 여가 활동을 위한 가족, 친구 등의 동반자나 인적 관계의 참여 여부에 따른 여가 활동의 결정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제약요인은 여가활동 참여에 필요한 재정, 시간, 여가 환경, 여가 프로그램과 정보 부족 등을 의미한다. 여가선호(Leisure Preferences), 여가참여(Leisure Participation)와의 관계에서 설명해 보면, 개인의 내재적 제약으로 여가 선호를 유인하거나 혹은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여가참여에 이르거나 또는 이르지 못하게 되고(그림 1의 A), 대인적 제약요인은 개인적인 여가선호가 있더라도 다수의 참여자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거나, 여가참여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쳐 결국 여가참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의 B). 마지막으로 구조적 제약은 여가선호가 여가참여에 이르는 과정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좌절시키는 요인으로, 여가활동에 있어 필요로 하는 시간, 프로그램, 재정과 같은 환경적 구조적 요인을 말한다(그림 1의 C). 이렇듯 기존의 여가제약 모형은 여가선호가 여가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장애(barrier)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집중하였고, 여가참여에 이르는 과정은 비교적 단선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 다만 본 연구에서의 자유의지는 스스로 여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한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라는 의미를 넘어, 합리적 이성을 강조하는 근대철학에서의 자유의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음을 일러둔다. 장애인의 여가연구에 있어 합리적 이성과 이에 기반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장애의 의료모델에 보다 가까운 해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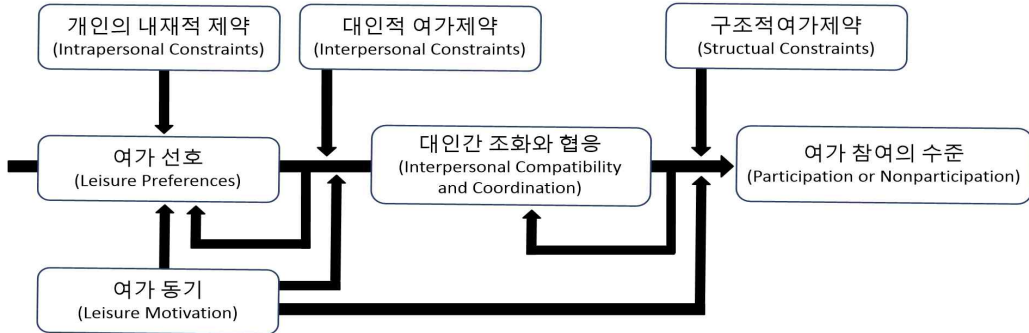
[그림 1]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여가제약



※ 자료 : Crawford and Godbey's three types of leisure constraints(1987)

이에 대하여 Crawford, Jackson and Godbey(1991)은 기존의 여가제약 요인을 규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약요인은 제약의 정도에 따라 위계나 순차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여가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위계적 여가제약 모형'을 주장하였다. 이때, 내재적 제약요인이 가장 우선시 되며 이후 대인적,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단계적으로 제약이 해소되어야 궁극적으로 여가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그림 1]의 여가제약 모델은 여가 참가자가 일련의 제약 조건 수준을 순차적이고 계층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으로 통합한 단일모델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Jackson 등(1993)은 이를 한 차례 더 수정하여 제약요인은 일방향으로 순차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타협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여가참여로 이어진다는 '여가 타협과 균형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2]를 통해 살펴보면, 내재적 여가제약과 대인적, 그리고 구조적 여가제약은 제약요인 간의 조화 혹은 타협을 통해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으며 여가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잡한 과정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가제약 이론은 사회복지학에서의 생태체계이론이 체계 내,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인정하며 다층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므로 학제 간 연구의 틀로 활용하기에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여가 타협과 균형 모형



※ 자료 : Edgar L. Jackson , Duane W. Crawford & Geoffrey Godbey (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Figure 4. Leisure participation as the product of a balance between constraints and motivations., Figure 3. Interactions among types of constraints. 을 종합하여 도식화함

이러한 여가제약 모형을 장애인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할지에 대하여 선행연구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 유형이 이동장애, 감각장애 및 정신적 장애와 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가제약에 대한 지각 또한 다변적(multifacted), 맥락적(contextual)인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Jackson and Scott, 1999). 여가제약 모형의 각 제약요소 중 강조하는 요소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먼저 Smith(1987)는 장애인 당사자의 내재적 제약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당사자가 제약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관광업계 종사자도 이러한 제약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성훈, 이재성(2013)에서는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가모형을 개발, 검증한 결과 '자신감의 부족'과 같은 내재적 제약이 주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들은 실제 여가 참여 과정에서 '극복전략'과 '타협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수의 여가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구조적 제약을 강조하였는데(Ray and Ryder, 2003; Mckercher et al, 2003; Shaw and Coles, 2004), Ray 와 Ryder(2003)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여행계획과 관련한 연구에서, 물리적 접근성과 이에 대한 정보 접근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Mckercher 등(2003)은 장애인이 여행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여행사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의 욕구에 대해 무관심한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와 단체여행상품을 선호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측면을 제약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Shaw and Coles(2004)에서는 장애인의 관광 욕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장애인 관광객에 대한 연구가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장애 연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여가제약 요인으로 접근성의 문제, 교통, 의료, 활동보조인, 소득수준을 비롯하여 대인적인 문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장애인의 여가제약 요인을 재구성한 선행연구 중 박승현·이영진(2011)은 장애인 관광의 제

약요인을 환경적 제약, 제도적 제약, 개인·심리적 제약, 상호적 제약으로 구성된 후 특히 제도적 제약요인이 장애인에게 중요함을 지적했고, 이훈·이영진(2010)은 요인분석을 통해 개인·심리적, 상호적, 경제적, 환경적 제약으로 여가제약을 구성했다. 한편, 송화성, 강영애(2021)는 기존의 여가제약모형을 구성하는 제약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신체적 불편함 그 자체보다 이로 인한 '심리적 두려움', '타인에 대한 미안함'에 따른 심리적 위축으로 여가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내재적 제약, '타인의 부정적 태도'나 '가족'의 태도와 같은 대인적 제약이 장애인 당사자의 여가활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여가 프로그램 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중요한 구조적 제약으로 도출했다. 더불어 기존의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여가 프로그램이 장애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어 여가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인의 심리적 만족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여가 제약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확인하였으나 장애인의 여가활동 수행이 내재적·대인적·구조적 제약요인 전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Jackson 등(1993)의 '여가 타협과 균형 모형'을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휠체어 접근성이 마련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여가활동은 구조적 제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 장소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내재적 제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또한, 여가활동의 동반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공연장의 휠체어 좌석 수, 혹은 숙박시설의 장애인 전용 객실 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구조적 제약이 대인적 제약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어느 하나의 제약요인 해소가 여가 참여로 이어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제약요인이 상호작용함을 이해하는 동시에 제약에 대한 성공적인 협상 과정을 도출하는 모델로 장애인의 여가제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여가제약을 비장애인과는 다른 제약요소로 차별화 하려는 시도가 1980년대 사회모델과 그 발전적 흐름을 공유한다고 할 때, 장애인이 가지는 특수성보다는 인권맥락에서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현 시기에는 일반적인 여가제약이론을 토대로 살펴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을 내재적·대인적·구조적 제약요인으로 구분하고, 장애인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어떠한 제약요인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2019년 장애인 삶 패널조사이다. 장애인 삶 패널은 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일상생활, 소득수준, 건강실태, 복지욕구, 사회참여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개발원, 2018). 해당 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등록을 마친 등록장애인과 그 가족이 패널을 이루고 있고, 표본의 크기는 6,121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삶의 종단적 분석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제약 요소를 확인하고자 하므로 2019년의 단년도 자료만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삶의 질 패널의 조사 모집단은 기준시점의 국내 모든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나,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제외한 19세 이상의 성인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있어 독립적인 결정과 행동을 하기 보다 학교 교육을 주로 받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참여를 비롯한 여가활동 전반에 있어 부모가 주는 영향을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여가의 중요한 개념요소로 나타난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한다는 요소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4,648명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여가 유형화를 위한 변수

장애인의 여가활동 유형화를 위한 여가항목은 국민여가활동조사의 8개 분류를 기준으로 장애인 삶 패널의 해당 변수를 재구성하였다. 장애인 삶 패널에서는 장애인이 참여한 여가활동의 구분을 TV보기, 라디오 듣기, 휴식 등 14개의 목록으로 구성했는데,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재유형화를 간명하게 나타내고자, 보다 상위 범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여가활동조사의 8개 분류에 해당하도록 한 것이다(표 1). 따라서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여가항목에는 복수의 삶의 질 패널 항목을 포함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7번 휴식 유형에 TV시청, 라디오 듣기, 휴식(낮잠, 목욕탕 가기), 집주변 산책의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에는 한 가지라도 경험이 있으면 경험있음(=1)로 조작하여 단순화하였다. 또한, 장애인 삶 패널은 관광경험을 14개의 여가활동 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항목으로 질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여가실태

조사의 5번 관광활동은 별도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장애인 삶 패널에서는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을 묻는 질문이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순위의 구분 없이 동위로 '경험있음'으로 보았고, 별도 항목으로 설문하였던 관광경험은 국내여행, 해외여행을 구분하지 않고 여행경험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1로, 여행경험이 없는 경우를 0으로 보았다.

[표 1]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여가활동 구분 및 삶의 질 패널변수

여가 유형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세부 내용	장애인 삶 패널조사의 여가항목	유형화를 위한 변수
1 문화예술 관람활동	교양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 등을 관람 하는 행동(전시관, 박물관, 음악연주회, 전통예술공연, 연극공연, 무용공연, 영화보기, 연예공연 관람 등)	• 영화, 연극, 연주회 관람	경험있음=1 경험없음=0
2 문화예술 참여활동	문화예술 공연, 창작활동, 미술, 연주 등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문학행사참여, 글짓기 및 독서토론, 미술활동, 악기연주 및 노래교실,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 춤 과 무용)	• 예술 활동(악기연주, 글쓰기, 춤 등)	
3 스포츠 관람활동	농구, 야구, 축구, 복싱, 격투기 등 각종 경기 관람(구경만)하는 활동.(스포츠경기 직접관람(현장), 스포츠경기 간접관람(TV나 유튜브), 격투기 경기 관람, 온라인게임경기 현장관람)	-해당없음-	
4 스포츠 참여활동	심신의 단련이나 교제를 목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경우(농구/배구/야구/족구/ 축구 , 테니스/스쿼시, 당구/포켓볼, 볼링/탁구, 골프, 수영, 윈드서핑/수상스키/스킨스쿠버/레프팅/요트, 스노보드/스키, 아이스스케이팅/아이스하키, 헬스 /에어로빅, 오가/필라테스/테보, 배드민턴/줄넘기/맨손체조/스트레칭/롤러우프, 육상/조깅/속보, 격투기, 맨스 스포츠, 사이클링/산악자전거, 인라인스케이팅, 승마/암벽등반/철인3종/서바이벌)	• 운동하기 (헬스, 축구 수영)	
5 관광활동 ^a	즐거움을 목적으로 일상 생활권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활동으로 낯선 지역의 풍경, 풍습, 문물 등을 보거나 체험해보는 일을 일컫음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관광, 산림욕, 국내캠핑, 해외여행, 소풍/야유회, 온천/해수욕, 유람선타기, 테마파크/놀이공원/동물원/식물원, 지역축제 참가, 자동차드라이브)	• 국내여행 • 해외여행	(국내, 해외 불문하고) 경험있음=1 경험없음=0
6 취미오락 활동	전문성보다는 자신의 흥미에 중점을 두고 자유시간에 즐기는 다양한 활동(수집활동, 생활공예, 요리/다도, 반려동물 돌보기 , 노래방가기, 인테리어, 등산, 낚시, 미니홈프/블로그 관리, 인터넷검색/채팅/UCC제작/눈 , 게임, 보드게임, 게임, 바둑/장기/체스 , 겜블/복권, 쇼핑/외식, 음주, 독서 , 만화보기, 미용, 어학/기술/자격증 취득/학원 , 이색/테마카페 체험, 원예)	• 컴퓨터 또는 인터넷 • 독서, 학습(언어공부, 강의듣기 등) • 바둑, 장기 • 동/식물 기르기	한가지라도 경험있음=1
7 휴식	일상생활에 피로해진 심신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기본전환 활동(산책 및 걷기,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TV시청 , 모바일 콘텐츠/동영상/VOD 시청, 라이도 청취/팟캐스트 청취 , 음악감상, 신문/잡지보기, 아무것도 안하기)	• TV시청 • 라디오 듣기 • 휴식(낮잠, 목욕탕가기) • 집주변 산책	전혀경험없음=0
8 사회 및 기타 활동	봉사활동 ,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회봉사활동, 종교활동 , 클럽/나이트/카바레/디스코 가기, 가족 및 친지방문 ,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친구만남/이성교제/미팅/소개팅, 동호회, 기타여가활동)	• 자원봉사 활동 • 친구 및 가족모임 • 종교 활동	

a. 관광(국내여행, 해외여행)을 별도로 설문

b.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세부 여가내용 중, 장애인 삶 패널의 여가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굵은 글씨로 표시함.

(2) 여가 제약의 측정

여가제약의 측정을 위해 Crawford와 Godbey(1987)의 분류에 기초한 여가제약요소를 비롯하여 최근의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내재적 제약요인으로는 장애수용과 운동참여, 여가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최근의 연구(김미혜 등, 2020) 및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및 장애수용을 연구한 송진영(2021)의 연구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장애수용과 자존감변수를 활용했다(김종일, 2013; 권충훈, 최희철; 2016, 이훈, 이영진, 2010; 황성혜, 임원균, 2012). 특히 Yau, McKercher과 Packer(2004)는 이 동장애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관광에 참여하는 첫 단계임을 지적했다. 장애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한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 같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작업이 바로 장애수용의 단계라는 것이다²⁾.

두 번째 대인적 제약요인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여가동반자와 가족관계 만족도, 의사결정 주체를 포함하였다(황혜선, 이윤석, 2021; 윤정현, 2018; 이용철, 채예병, 2014). 패널의 가족관계 만족도 설문 중에서 '나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 '나는 배우자와 관계가 좋다', '나는 자녀와 관계가 좋다'의 세 문항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고, 여가 동반자와 관련한 '주로 누구와 여가활동을 합니까?'의 질문에는 혼자서, 가족, 친구, 직장동료, 동호회 회원, 지인, 기타 등 7가지 응답 항목을 모두 활용했다. 가정 내에서 의사결정 주체를 묻는 질문은 여가의 핵심 개념인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대인적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수로 포함하였다.

마지막 구조적 제약요인에는 가구소득과 장애인이 사회에서 더 존중받을 권리를 포함하였다. 가구소득은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구조적 제약요인으로(이훈, 이영진, 2010; 박승현, 이영진, 2011; 송화성, 강영애, 2021), 분석을 위해 가구평균소득을 가족 구성원의 제공근으로 나눔으로써 균등화된 개인소득을 산출하는 OECD 제공근 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장애인이 사회에서 더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의 미비와 같은 개별적 설문으로 구조적 제약을 측정하였으나(Crawford, Godbey, 1987; 이유리, 박미석, 2006), 현대 복지국가의 역할은 장애인의 인권실현 및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므로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더 존중받아야 하는 권

2) 다만 개인의 장애수용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는, 그 사회공동체가 인식하는 장애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의 의료모델 하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차이와 불편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장애수용을 측정할 수 있다면, 사회모델 및 인권모델에 이르러서는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영향을 받는 것을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 자신의 장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삶의 태도로도 장애수용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리'에 대한 질문으로 포괄하여 측정하고자 했다. 구조적 제약은 접근성, 시설정보와 같이 객관적인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위해 당사자가 인식하고 요구하는 국가사회의 전방위적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인구사회학적 변수

본 연구에서는 성별(남, 여), 거주지역의 크기(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동), 거주지 권역(수도권, 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 충청권, 제주), 연령(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장애 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내부/안면장애), 장애 정도(중증, 경증), 혼인상태(미혼, 기혼, 이혼·별거·사별), 최종학력(미취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 졸, 석사, 박사, 무학) 등을 인구 사회학적 변수로 포함하였다. 장애 유형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15개 분류 대신 장애인 삶 패널에서 제시한 7개 분류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장애 유형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입할 정책적 지점에 집중하려 하였다(표 3) 참조).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여가선호를 분류할 수 있는 최적의 집단을 발견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한 후, 유형에 따른 여가제약요인의 차이를 발견하는 단계적인 분석을 시행했다. 먼저 전체 장애인 집단을 장애인의 여가특성에 따라 재유형화하기 위해 잠재유형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사용하였고(표 2) 이를 위해 장애인 삶 패널의 여가항목 14개와 국내 외 관광경험 설문을 국민여가활동조사의 8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표 1)참조). 잠재유형분석(LCA)은 각 변수가 집단에 소속될 잠재확률을 통계적으로 계산하여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으로(이상균 외, 2017), 연구대상 각각의 특성이 분류방법에 반영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가 변수 중심적(variable-centered)이었다면 연구 대상 각각의 특징에 따라 최적의 분류 수를 찾아낼 수 있어 대상 중심적 접근법(person-centered)이라고 평가된다(박지수 외, 2017; 오영교, 차성현, 2018). 잠재유형분석에 의해 8개 항목으로 재구성한 장애인 삶 패널의 여가 유형을 재유형화한 후, 여가제약 이론에 따라 각 유형 간의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및 구조적 제약요인을 분석하였다. 제약요인 중 연속변수로 나타난 변수는 ANOVA를 통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범주형 변수의 경우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집단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Mplus Version 7.0, spss18이다.

4.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특성

본 연구의 전체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4,648명의 표본 중 남성이 2,538명(54.6%), 여성이 2,110명(45.4%)이었고, 장애 유형을 장애인 삶 패널에서 제시한 7개로 구분한 결과 내부장애 1,136명(24.4%), 지체장애 809명(17.4%), 청각/언어장애 783명(16.8%), 뇌병변장애 741명(15.9%), 시각장애 629명(13.5%), 정신장애 283명(6.1%), 지적/자폐성장애 267(5.7%) 순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의 정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가 2,340명,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2308명인 49.6%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기혼이 2,514명(5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혼·사별·별거가 1,200명(25.8%), 미혼이 934명(20.1%)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50~60대가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993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하였으며, 중학교 졸업이 854명(18.4%), 초등학교 졸업이 755명(16.2%), 무학이 210명(4.5%)로 나타났다([표3]참조).

2) 여가활동 유형화 결과

본 연구에서 선택한 장애인의 여가유형화를 위해 잠재집단의 수를 3개에서 7개까지 늘려가며 모형적합도를 확인해 보았다. 최적의 모형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기준지수에는 아카이케 정보기준지수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이하 AIC), 베이지언 정보기준지수(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이하 BIC), 수정 베이지언 정보기준지수(sample-size-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이하 aBIC)가 있다. 정보기준지수가 적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나, AIC는 계층 수가 많이 입력될수록 모형적합도가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Entropy값은 0에서 1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확실성이 좋음을 의미하고(Jedidi et al., 1993) 0.8 이상이면 분류의 질이 높다고 보는데(이상균 외, 2017), 0.6이면 80% 이상, 0.8 이상이면 전체 자료의 90% 이상 제대로 분류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오영교, 차성현, 2018). 잠재유형간의 비교를 위해 LMR-LRT와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정(BLRT)을 사용하는데, 이 값이 유의하게 나타나면 분석에 투입한 n개의 모형이 이전 n-1개의 모형보다 유의미한 모형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기준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결성 혹은 실제적 유용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고 선택된 집단을 통해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Yampolskaya et al., 2009; 배화옥·강지영, 2016).

[표 2] 모형적합도

구분	Akaike (AIC)	Bayesian (BIC)	ample-Size Adjusted BIC	Entropy	LMR-LRT p-value	BLRT p-value
3	21066.674	21214.891	21141.805	0.962	<.001	<.001
4	20876.621	21076.391	20977.885	0.976	<.001	<.001
5	20684.099	20935.422	20811.495	0.794	<.001	<.001
6	20647.853	20950.730	20801.381	0.812	<.001	<.001
7	20663.099	21017.530	20842.760	0.990	0.3712	0.3077

본 연구에서는 AIC지수와 aBIC 지수가 6분류에서 가장 낮게 나왔고, BIC는 5분류에서 가장 작게 나왔다. 그러나 6분류의 경우 집단에 속하는 인원의 최대값이 최소값의 10배를 상회하여 전체 표본의 절반 이상이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결과, 적절한 유형분류라 판단되지 않았다. 유형의 개수를 선택함에 있어 실제적인 유용성과 해당 유형화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의미를 고려했을 때, BIC값의 최소값을 보이는 5분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고, 이러한 유형화를 기초로 전체 자료의 여가제약 요소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의 여가활동 유형은 일상휴식을 단일의 여가로 선택하고 있는 1유형(일상휴식형), 일상휴식을 주로 하지만 추가적으로 관광활동이나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유형(스포츠참여 및 관광형), 일상휴식과 함께 취미오락을 여가활동으로 선택한 3유형(취미오락형)과,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 및 기타활동, 관광활동과 스포츠 참여 그리고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를 여가활동으로 하고 있는 4유형(적극적 여가참여형), 마지막으로 일상휴식과 함께 사회 및 기타 활동이 두드러지는 5유형(사회교류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유형화에 있어 2유형과 4유형의 차이는 일상휴식을 선택하는지의 여부로 나눌 수 있는데, 4유형에서는 일상휴식의 여가활동을 하지 않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며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어 적극적 여가참여형으로 명명하였다([그림 3] 참조).

이러한 유형화를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면 유형별 특성이 더욱 잘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일상휴식형으로 분류되었던 1유형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연령 구간별 중간값을 투입하여 산정한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고령 집단이었고, 장애 정도로는 중증장애의 비중이 57%를 상회하였다. 고령의 중증장애인이 많다는 1유형의 특성은 초졸 및 무학의 비율이 집단 중 가장 높은 20.5%, 5.9%인 것도 설명될 수 있다. 장애유형으로는 뇌병변 장애가 20.2%로 다섯 유형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정신장애 또한 7.6%로 가장 높았다. 1유형의 또 다른 특징은 여가유형 중 1순위, 2순위를 동위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에도 ‘휴식’ 이외에는 다른 여가활동이 드러나지 않는 가장 소극적인 여가 집단이라는 점이다.

2유형(스포츠참여 및 관광형)은 장애 정도가 경증인 비율이 61%이고 남성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각, 언어장애의 비중이 20.2%로 집단 중 가장 높고, 혼인상태는 현재 결혼

중인 비율이 69.2%로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연령은 50~60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2집단이 1집단과 다른 여가 유형에 있어 관광, 스포츠 등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장애유형 및 결혼상태에 기인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유형(취미오락형)은 남성 비율이 66.1%로 5개의 유형 중 남성 성비가 가장 높았고, 53.6%가 대도시에 거주하였으며, 미혼인 비율이 37.1%로 가장 높았다. 장애 유형으로는 내부 안면장애가 32.5%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이 9.9%로 5개 유형 중 가장 높았다. 20대~40대의 청, 장년층 비율이 높았고, 학력 또한 고등학교 졸업이 52%가 넘어 4유형에 이어 높게 나타났다.

4유형(적극적 여가참여형)은 2유형(스포츠참여 및 관광형)과 마찬가지로 장애 정도의 경증 비율이 높은 유형으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약 35%로 가장 높은 고학력 집단이었다. 연령대는 20대의 비중이 두드러졌고, 미혼 혹은 결혼한 상태가 87.3%였다. 이러한 인구학적 특징으로 여가 유형에 있어 일상휴식형 여가를 포함하지 않고 문화예술 관람을 비롯하여 관광, 스포츠참여와 취미 오락, 사회활동을 아울러 즐기는 여가 유형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5유형(사회교류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59.1%였다. 장애 정도로는 경증장애가 62%로 유형 중 가장 높고, 장애 유형에서는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 비율이 23.2%, 17.7%로 집단 중 가장 높았으며 청각/언어장애의 비율은 18.8%로 2유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정신장애의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이었다. 50대 이상의 비율은 8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의 비율도 9.2%로 1유형에 이어 높았다. 5유형의 여가활동 특징은 일상 휴식과 함께 사람을 만나는 사회 및 기타활동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그림 3] 장애인의 여가활동 유형화



[표 3] 5개 여가활동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	2	3	4	5	계
성별	남	1308	387	399	252	192	2538
	여	52.90%	57.70%	66.10%	58.30%	40.90%	54.60%
		1164	284	205	180	277	2110
		47.10%	42.30%	33.90%	41.70%	59.10%	45.40%
지역크기	대도시	1139	304	324	204	216	2187
	중소도시	46.10%	45.30%	53.60%	47.20%	46.10%	47%
	읍면	1185	322	239	197	209	2152
		47.90%	48.00%	39.60%	45.60%	44.60%	46.30%
		148	45	41	31	44	309
		6.00%	6.70%	6.80%	7.20%	9.40%	6.60%
권역	수도권	1252	316	283	201	201	2253
	경남권	50.60%	47.10%	46.90%	46.50%	42.90%	48.50%
	경북권	422	79	141	52	98	792
	전라권	17.10%	11.80%	23.30%	12.00%	20.90%	17%
	충청권	307	84	50	29	48	518
	강원	12.40%	12.50%	8.30%	6.70%	10.20%	11.10%
	제주	223	77	54	57	51	462
	제주	9.00%	11.50%	8.90%	13.20%	10.90%	9.90%
		195	80	58	60	48	441
		7.90%	11.90%	9.60%	13.90%	10.20%	9.50%
		37	26	12	26	18	119
		1.50%	3.90%	2.00%	6.00%	3.80%	2.6
		36	9	6	7	5	63
		1.50%	1.30%	1.00%	1.60%	1.10%	1.40%
장애유형	지체장애	367	142	112	79	109	809
	뇌병변장애	14.80%	21.20%	18.50%	18.30%	23.20%	17.40%
	시각장애	499	108	60	38	36	741
	청각/언어장애	20.20%	16.10%	9.90%	8.80%	7.70%	15.90%
	지적/자폐성장애	329	79	67	71	83	629
	정신장애	13.30%	11.80%	11.10%	16.40%	17.70%	13.50%
	내부/안면장애	400	142	76	77	88	783
	내부/안면장애	16.20%	21.20%	12.60%	17.80%	18.80%	16.80%
		146	20	60	29	12	267
		5.90%	3.00%	9.90%	6.70%	2.60%	5.70%
		189	27	33	21	13	283
		7.60%	4.00%	5.50%	4.90%	2.80%	6.10%
		542	153	196	117	128	1136
		21.90%	22.80%	32.50%	27.10%	27.30%	24.40%
장애정도	중증	1410	262	319	171	178	2340
	경증	57.00%	39.00%	52.80%	39.60%	38.00%	50.30%
		1062	409	285	261	291	2308
		43.00%	61.00%	47.20%	60.40%	62.00%	49.60%
혼인상태	미혼	429	80	224	143	58	934
	결혼	17.40%	11.90%	37.10%	33.10%	12.40%	20.10%
	이혼, 별거, 사별	1265	464	277	234	274	2514
		51.20%	69.20%	45.90%	54.20%	58.40%	54.10%
		778	127	103	55	137	1200

		31.50%	18.90%	17.10%	12.70%	29.20%	25.80%
연령대 (10세 단위_단)	19세	7	2	17	10	2	38
		0.30%	0.30%	2.80%	2.30%	0.40%	0.80%
	20대	85	22	97	77	15	296
		3.40%	3.30%	16.10%	17.80%	3.20%	6.40%
	30대	118	38	73	45	21	295
		4.80%	5.70%	12.10%	10.40%	4.50%	6.30%
	40대	264	86	116	56	48	570
		10.70%	12.80%	19.20%	13.00%	10.20%	12.30%
50대	760	213	163	89	159	1384	
	30.70%	31.70%	27.00%	20.60%	33.90%	29.80%	
60대	944	261	123	130	181	1639	
	38.20%	38.90%	20.40%	30.10%	38.60%	35.30%	
70대 이상	294	49	15	25	43	426	
		11.90%	7.30%	2.50%	5.80%	9.20%	9.20%
	평균연령*	58.04	56.84	47.36	49.61	57.66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507	103	44	23	78	755
		20.50%	15.40%	7.30%	5.30%	16.60%	16.20%
	중학교 졸업	522	119	73	45	95	854
		21.10%	17.70%	12.10%	10.40%	20.30%	18.40%
	고등학교 졸업	1002	277	315	209	190	1993
		40.50%	41.30%	52.20%	48.40%	40.50%	42.90%
	전문대 졸업	88	49	53	44	24	258
		3.60%	7.30%	8.80%	10.20%	5.10%	5.50%
	대학교 졸업	188	87	104	89	49	517
		7.60%	13.00%	17.20%	20.60%	10.40%	11.10%
대학원 석사	13	6	10	16	3	48	
	0.50%	0.90%	1.70%	3.70%	0.60%	1%	
대학원 박사	6	1	1	2	3	13	
	0.20%	0.10%	0.20%	0.50%	0.60%	0.30%	
무학	146	29	4	4	27	210	
	5.90%	4.30%	0.70%	0.90%	5.80%	4.50%	
	전체	2472	671	604	432	469	4648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

*패널자료의 한계로 10대를 제외하고 구간별 연령을 중간값으로 산정하여 평균연령을 도출함

3) 집단별 여가제약 요인의 비교

(1) 내재적 제약

5개의 집단 간에는 내재적 제약요소인 자존감, 장애수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 = 95.608^{***}$, $F = 75.443^{***}$). 우선 자존감의 경우, 집단별 평균은 4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유형(적극적 여가참여형)은 가장 적극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경증이면서 연령대가 낮고 학력이 높은 특성이 있었다. 또한, 자존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고령의 중증장애인으로 일상휴식형의 여가특성을 보이는 1유형이었다. 장애수용에서도 유형 간 차이

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장애수용이 가장 높은 집단이 4유형(적극적 여가참여형), 가장 낮은 집단은 1유형(일상휴식형)으로 나타나 자존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4] 내재적 여가제약 요인의 집단비교

	N	자존감		장애수용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1	2472	25.54	.078	26.37	.103
2	671	27.46	.150	28.51	.206
3	604	27.01	.169	27.98	.217
4	432	28.69	.192	30.37	.271
5	469	27.76	.175	28.74	.233
계	4648	26.53	.060	27.50	.079
분산분석		F = 95.608***		F = 75.443***	

(2) 대인적 제약

여가활동의 대인적 제약요소로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여가동반자 그리고 의사결정 주체의 집단별 분포를 확인해 보았다.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1유형(일상휴식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집단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93% 이상이었다. 1유형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응답이 12%를 상회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1유형에서 좋지 않다는 응답이 유일하게 10%를 넘었고, 여가활동 동반자의 경우 3유형(취미오락형)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여가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70%를 넘었다. 다만 의사결정 주체로 나 자신을 선택한 비율은 제1유형에서 가장 낮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1유형이 고령의 중증장애인 비율이 높으므로 성인 자녀 혹은 형제자매를 의사결정 주체로 선택한 비율이 9%로 다른 유형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 점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동을 친구와 함께한다고 응답한 4유형(적극적 여가참여형)과 5유형(사회교류형)은 경증장애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5유형에서는 의사결정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유형에 비해 연령이 낮은 3유형(취미오락형)과 4유형(적극적 여가참여형)에서는 의사결정 주체가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다양한 여가 분야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4유형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와의 관계가 항상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어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족의 지지체계가 비교적 공고한 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내재적 제약에서 장애수용과 자존감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던 4유형은 여가활동을 동호회 회원과 함께한다는 비율도 5% 정도로 나타나는 점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특징적이었다.

[표 5] 대인적 여가제약 요인의 집단비교

가족관계 만족도		1	2	3	4	5	χ^2
나는 부모와 관계가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 1.7%	1 .3%	3 .7%	3 1.0%	1 .5%	101.932*** n=2516
	그렇지 않다	125 10.5%	18 4.9%	29 6.5%	12 4.2%	8 3.6%	
	그렇다	784 65.8%	231 63.5%	246 54.8%	147 50.9%	135 60.8%	
	항상 그렇다	263 22.1%	114 31.3%	171 38.1%	127 43.9%	78 35.1%	
나는 배우자와 관계가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	22 1.7%	4 .9%	3 1.0%	3 1.3%	4 1.5%	79.455*** n=2544
	그렇지 않다	126 9.8%	14 3.0%	14 4.9%	10 4.2%	9 3.3%	
	그렇다	805 62.8%	291 62.4%	169 59.1%	114 48.3%	164 59.6%	
	항상 그렇다	328 25.6%	157 33.7%	100 35.0%	109 46.2%	98 35.6%	
나는 자녀와 관계가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	47 2.6%	7 1.2%	10 2.9%	4 1.5%	3 .8%	119.746*** n=3365
	그렇지 않다	173 9.6%	21 3.7%	16 4.7%	10 3.7%	24 6.3%	
	그렇다	1127 62.3%	330 58.6%	190 55.7%	120 44.1%	207 54.5%	
	항상 그렇다	462 25.5%	205 36.4%	125 36.7%	138 50.7%	146 38.4%	
여가활동 동반자	혼자서	1474 73.04%	409 61.50%	451 74.92%	173 42.93%	182 39.48%	827.055*** n=4149
	가족	492 24.38%	189 28.42%	117 19.44%	67 16.63%	132 28.63%	
	친구	52 2.58%	50 7.52%	29 4.82%	142 35.24%	142 30.80%	
	직장동료	0 0.00%	3 0.45%	1 0.17%	1 0.25%	3 0.65%	
	동호회 회원	0 0.00%	14 2.11%	4 0.66%	20 4.96%	2 0.43%	
의사결정 주체	나 자신	1234 49.96%	366 54.55%	317 52.66%	232 53.70%	302 64.39%	248.259***
	배우자	745 30.16%	236 35.17%	126 20.93%	99 22.92%	123 26.23%	

부모	251 10.16%	50 7.45%	137 22.76%	87 20.14%	19 4.05%	
성인 자녀	149 6.03%	13 1.94%	8 1.33%	5 1.16%	15 3.20%	
형제, 자매	75 3.04%	5 0.75%	7 1.16%	4 0.93%	7 1.49%	
가족 모두	3 0.12%	1 0.15%	3 0.50%	4 0.93%	1 0.21%	
친인척	10 0.40%	0 0.00%	2 0.33%	0 0.00%	1 0.21%	
후견인	3 0.12%	0 0.00%	2 0.33%	1 0.23%	1 0.21%	n=4644

(3) 구조적 제약

구조적 제약은 ‘균등화소득’, ‘장애인이 사회에 더 존중받을 권리’의 요소로 분석하였다. 먼저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5개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 = 20.28^{***}$), 구체적으로 평균 소득의 크기는 4, 2, 3, 5, 1유형 순으로 나타났다(표 6).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4유형(적극적 여가참여형)으로, 이 집단은 가장 적극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며, 경증장애면서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고 학력이 높으며 가족 간의 지지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더 존중받을 권리’는 총 12개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는 전체 4,648명 중 32.8%가 응답하였으며, 이어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20.8%, ‘건강권’이 17.6%, ‘노동권’이 8.3%, ‘문화, 여가,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6.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문화, 여가,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교육권,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보다 높은 것은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분석하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유형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로, 2순위로는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로 나타났다. 다만 유형별로 그 이후의 순위는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1유형(일상휴식형)의 경우 ‘건강권’, ‘문화, 여가,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노동권은 5.9%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1유형(일상휴식형)의 특성이 고령의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노동이 가능한 건강 상태나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유형(스포츠참여 및 관광형)은 ‘건강권’에 이어 ‘노동권’이 전체 5개 유형 중 3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10.9%), 이는 남성의 경증장애인으로 혼인 중인 비율이 높은 2

문화, 여가,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159 6.4%	53 7.9%	43 7.1%	27 6.3%	39 8.3%	321 6.9%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0 3.2%	13 1.9%	21 3.5%	18 4.2%	7 1.5%	139 3.0%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531 21.5%	134 20.0%	121 20.0%	79 18.3%	102 21.7%	967 20.8%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87 3.5%	26 3.9%	21 3.5%	16 3.7%	14 3.0%	164 3.5%
이동권	55 2.2%	6 .9%	10 1.7%	3 .7%	11 2.3%	85 1.8%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21 .8%	6 .9%	5 .8%	4 .9%	8 1.7%	44 .9%
대중이용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23 .9%	5 .7%	2 .3%	5 1.2%	8 1.7%	43 .9%
전체	2472 100.0%	671 100.0%	604 100.0%	432 100.0%	469 100.0%	4648 100.0%

5.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유형화한 후 여가제약 요소를 통해 유형 간의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여가활동은 일상휴식형(1유형), 스포츠참여 및 관광형(2유형), 취미오락형(3유형), 적극적 여가참여형(4유형), 사회교류형(5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유형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재적, 대인적 및 구조적 여가제약 요인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여가제약의 내재적 요인인 자존감 및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여가 참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중 관광, 스포츠,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등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4유형(적극적 여가참여형)의 경우 자존감, 장애수용이 유형 중 가장 높았고, 1유형(일상휴식형)의 경우 가장 낮은 자존감과 장애수용 정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개별 여가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의 접근과 함께 장애 당사자의 장애수용 및 자존감과 같은 대내적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의 정책적 시각변화가 필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유형(일상휴식형)의 경우는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도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비율이 높았고, 의사결정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평균 소득 및 학력이 가장 낮았으

며 장애 유형 중에는 뇌병변장애 및 정신장애가 높은 비율을 보였던 1유형에 해당하는 인구집단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었거나 대외활동 혹은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개입을 위한 사례발굴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유형은 여가 제약요소에 있어 대내적, 대인적 및 구조적 제약요인이 증첩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유형(사회교류형)의 경우 1유형(일상휴식형)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의 고연령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적인 여가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5유형에서 경증 장애 비율이 높다는 점과 여성 비중이 60%가량으로 타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그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5유형은 또한 응답자 자신을 주요한 의사결정 주체로 응답했다는 점, 그리고 자존감 및 장애수용도 4유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령의 여성집단이 가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상쇄하는지, 고령 여성과 장애 여성이 가지는 교차적 특성이 장애 여가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분화될지에 대하여 더욱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신체의 자유 및 안전과 적절한 생활 수준과 같은 사회적 보호는 현재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쟁점 사항이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여가 유형화에서도 다양한 여가특성이 나타나는 각각의 집단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다. 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성에 추가적으로 장애인의 장애특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강조하는 권리가 차별적이라는 것과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의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세부적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 가능한 연령층에는 노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고령 장애인에게는 건강과 관련한 세부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구조적 제약에 있어 흥미로운 점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더 존중받을 권리를 묻는 설문에서 '교육권'이나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보다 '문화, 여가,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응답이 모든 유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교육권의 경우, 분석대상자가 학령기를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도에서 떨어진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문화,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자립이나,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보다 높게 나타난 지점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장애인 개인에게 있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문화, 여가, 체육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하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제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더 존중받을 권리 중 하나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장애인들은 이제 여가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장애 당사자의 인식수준을 국가사회가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여가학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여가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가 제약요인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여가 참여가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여가 제약의 개념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여가활동의 특성을 설명하려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의 여가 유형별 관계되는 여가 제약요소가 해당 여가 유형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관련된 특정 여가 제약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할 수는 있다. 예컨대, 내재적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방식의 예로 비슷한 유형의 장애 인구의 여행 경험담을 공유함으로써 여행 동기를 강화하거나, 지적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건물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물리적 제약요인을 미리 제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유형화를 통해 치밀하게 분석하고자 했던 지점은 여가 유형별로 발견되는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을 통해 장애인 집단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장애인은 하나의 통일된 특성이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적 개입을 비롯하여 장애 청년, 장애 노인, 장애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정책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 본 패널조사의 보고서에서는 지난 1개월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으로 'TV보기'가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없음(11.9%)'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개발원, 2019). 이러한 배경에는 국가사회의 여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부재를 주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며, 장애 유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의사소통 편의시설 부족 등도 여가활동을 어렵게 하는 문제일 수 있다. 장애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가 장애인의 질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에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장애인의 여가연구에 있어서 어떠한 활동을 장애인 스스로 '여가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복지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외부활동이 여가활동인지, TV시청이 본인의 여가활동으로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장애인 스스로 반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이전에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과 밀접한 문제이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이 존재할 수 있음을 장애인 자신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찌 보면, 장애인의 여가활동은 자기 결정에 근거한 장애인 자립과 너무도 거리가 있는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와 함께 장애인 자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사회적 고민의 범위에는 스스로 결정하는 삶과 장애인의 여가 인식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여가활동 유형화를 위해 국민 여가활동조사를 기준으로 장애인 삶 패널의 해당 변수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가지는 의미가 손실되었을 수 있다는 점과 여행 항목에서 국내 여행과 다른 해외여행이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 독립적인 항목으로 설문하였던 관광(여행경험)을 8종의 여가 경험에 포함

하여 여행경험의 응답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변수조작 과정에서의 한계 및 설문 상의 한계가 유형화 결과를 국민여가활동조사와 단순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또한, 변수의 재구성 과정에서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국민여가활동조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시도한 것 자체가 장애인에게 특화된 여가 분류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여가에 관한 연구가 조금 더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보다 정교화 될 필요가 있겠다. 장애인 여가에 대한 설문 자체가 가지는 한계도 존재하는데, 장애인 삶 패널의 여가 문항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를 1, 2순위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여가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행동이라도 3순위 이상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인터넷 이용의 경우 동영상 시청, 유튜브 촬영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적극적 여가로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TV시청도 영화 감상이나 스포츠 관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설문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 여가연구의 활성화와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미경, 이동진, 유가효 (2010).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137-155.
- 강소영 (2014). 발달장애인의 여가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2000~ 2014 년도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6(2), 285-310.
- 고동우 (2007). *여가학의 이해*. 세림출판.
- 권충훈, 최희철 (2016).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전망적 효과 - 장애인고용패널 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2), 149-172.
- 김미혜, 박상현, 김권일. (2020). 장애수용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 운동참여 및 여가만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9(4), 58-73.
- 김종일 (2013).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수용, 차별경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3(4), 59-84.
- 김한철 (2004).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여가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1059-1070.
- 박승현, 이영진 (2011). 장애유형에 따른 관광제약의 차이 분석: 지체, 시각, 청각 장애를 대상으로. *관광연구논총*, 23(1), 193-212.
- 배화옥, 강지영 (2016). 아동 발달단계별 아동학대 특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36(1), 5-29.
-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장애인살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박지수, 김하영, 유진경, 한운선. (2017).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포래 비행의 유형과 특성.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8(2), 165-176.
- 송진영 (2021).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1(1), 146- 159.
- 송화성, 강영애 (2021). 관광 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여가제약 비교 연구: 열린 관광지 정책 관점에서. *관광연구*, 36(1), 89-111.
- 오영교, 차성현 (2018). 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유형 분석: 잠재계층분석방법 (Latent Class Analysis) 을 활용하여. *통계연구*, 23(3), 39-64.
- 윤정현 (2018). 관광가치지각, 가족관광 참여,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만족의 영향관계. *관광레저연구*, 30(4), 79-96.
- 이동진, 강미경, 유가효. (2010).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137-155.
- 이상균, 이봉주, 김세원, 김현수, 장화정, 진미정, 박지명 (2017). 아동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48(3), 171-208.
- 이용철, , 채예병 (2014). 가족관광 제약요인 극복을 위한 타협전략이 가족관광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연구*, 29(4), 355-371.
- 이유리, 박미석 (2006).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제약, 여가동기, 여가참여의 관계 -구조방정식 모형 구축을 통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1-30.
- 이충환 (2008). 시각장애인의 여가태도와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스포츠문화 과학연구지*, 14, 39-47.

- 이훈, 이영진 (2010). 후천적 장애인의 관광활동 단계 및 장애유형에 따른 제약과 만족분석. 지체. 중북. 건강장애연구, 53(1), 263-287.
- 임변장, 채관석, 우찬명, 김홍설 (1995). 한국인의 여가관에 관한 연구. 전국체육대회기념, 83-91.
- 임영명, 차태현 (2018). 국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관한 요인.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8), 293-299.
- 정연홍 (2010). 여가활동 참여 장애인의 여가만족과 생활만족간의 관계. 동북아관광연구, 9(1), 215-233.
- 정재춘 (2013). 장애인의 여가스포츠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배드민턴 활동을 참여하는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28(2), 139-159.
- 최성훈, 이재성 (2013). 여가제약타협 이론을 적용한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가모형 개발 및 검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3), 16-25.
- 황성혜, 임원균 (2012). 우울과 장애수용이 중도장애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6, 245-268.
- 황혜선, 이윤석 (2021). 노인1인가구의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동반자 유형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의 탐색. 보건사회연구, 41(4), 88-107.
-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 (1985). 한국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대책.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여가백서. 문화관광체육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3(1), 1-199.
- Crawford, D. W., & Godbey, G.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2), 119-127.
- Crawford, D. W., Jackson, E. L., & Godbey, G. (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09-320.
- Dumazedier, J. (1960). Current problems of the sociology of leisur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2(4), 522-531.
- Hills, P., & Argyle, M. (1998). Positive moods derived from leisure and their relationship to happiness and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3), 523-535.
- Iso-Ahola, S. E. (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 (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5(1), 1-11.
- Jackson, S., & Scott, S. (1999). *Risk anxiety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childhood. Risk and sociocultural theory: New directions and perspectives*, 86-107.
- Jedidi, K., Ramaswamy, V., & DeSarbo, W. S. (1993). A maximum likelihood method for latent class regression involving a censored dependent variable. Psychometrika, 58(3), 375-394.
- Kaplan, M. (1960). *Leisure in America: a social inquiry*. Leisure in America: a social inquiry.
- McKercher, B., Packer, T., Yau, M. K., & Lam, P. (2003). Travel agents as facilitators or inhibitors of travel: percep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ourism Management, 24(4), 465-474.
- Neulinger, J. (1974). The psychology of leisure: Research approaches to the study of leisure. Springfield, 11, 295-306.
- Ray, N. M., & Ryder, M. E. (2003). "Eibilities" tourism: an exploratory discussion of the travel needs and motivations of the mobility-disabled. Tourism Management, 24(1), 57-72.

- Shaw, G., & Coles, T. (2004). Disability, holiday making and the tourism industry in the UK: a preliminary survey. *Tourism management*, *25*(3), 397-403.
- Shivers, J. S. (1981). *Leisure and recreation concepts. A critical analysis*. Allyn and Bacon, Inc..
- Smith, R. W. (1987). Leisure of disable tourists: Barriers to particip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3), 376-389.
- Yampolskaya, S., Greenbaum, P. E., & Berson, I. R. (2009). Profiles of child maltreatment perpetrators and risk for fatal assault: A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5), 337-348.
- Yau, M. K. S., McKercher, B., & Packer, T. L. (2004). Traveling with a disability: More than an access issu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4), 946-960.

Abstract

A Study on the Types of Leisure Activitie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Focusing on Leisure Restrictions

Shin Jin-ho* · Hong Seoyoon**

In this study, after categorizing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e tried to identify more sophisticated policy intervention poi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by distinguishing the intrapersonal, interpersonal, and structural constraints by typ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eisure activitie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classified into Daily rest type (Type 1), Sports participation and tourism type (Type 2), Hobbies and entertainment type (Type 3), Active leisure participation type (Type 4), and Social exchange type (Type 5). In the case of Daily rest type, severe disability of the elderly was prominent, and leisure activities were mainly carried out alone. Sports participation and tourism type mainly take a break from daily life, but tourism and sports participation activities are also active. The ratio of being married is high and the percentage of choosing a spouse as the main decision-maker is high. As a type of Hobbies and entertainment type, there were relatively more people in their 30s and 40s, and the ratio of facial disfigurement and intellectual/autistic disorders was high. Among the types of active leisure participation type, the income and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disabled were the highest, and self-esteem and disability acceptance were also high. The social exchange type showed outstanding social and other interpersonal and external activities along with daily rest,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women and the percentage of choosing family and friends as leisure partner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different policy interventions are needed to respond to individual needs such as disability types, youth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and women with disabilities, rather than viewing the disabled as a single population group.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in order to revitalize leisure activit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solving internal constraints such as self-esteem and disability acceptance should be accompanied, and that policies suitable for the level of perception of the disabled should be considered in structural constraints.

Keywords: leisure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leisure restrictions, acceptance of disabilities, LCA, barrier-free tourism

◆ 2022. 1. 31. 접수 / 2022. 3. 1. 1차수정 / 2022. 6. 8. 게재확정

* Ph.D. student, School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violetjin@snu.ac.k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Tourism Science, Hanyang University (seoyoonhong@gmail.com)